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 일본 사례 중심으로

김동겸 선임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해외 보험회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 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일본 보험회사는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사, IT 업체 등과 활발한 업무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정부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는 산업 간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헬스케어산업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정비가 요구됨.

■ 인구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개인 건강관심 확대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전환되는 추세임.

■ 해외 주요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 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ICBM(IoT-Cloud-Big Data-Mobile)¹⁾, 즉,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정보 수집, 클라우드(Cloud)에 정보저장 및 공유,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모바일(Mobile), 웨어러블, 로봇 등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²⁾
 - 예로 미국 1위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의 경우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Healthkit)의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 또한, 보험회사는 타 산업에 축적된 정보나 기술 활용을 위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1) 각각의 기술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연계한 융·복합 기술을 의미함.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활용되는 추세임.

2)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ICT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방향」.

■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IT 업체 등과의 활발한 업무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연계한 신상품 개발도 추진 중에 있음(〈표 1〉 참조).

- 주우(住友)생명은 Discovery(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SoftBank(통신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건강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³⁾
 - Discovery는 건강개선 관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각종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Vitality)의 독점 사용권을 주우생명에 제공
 - SoftBank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집된 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보(운동량, 건강검진결과 등)를 분석하고, 이를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하여 주우생명에 제공
- 제일(第一)생명은 經濟産業省(정부기관), 교토대(학계), 일본 IBM(IT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교토대 의과대학의 생활습관병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일본 IBM의 AI 기반 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제일생명의 자회사인 NeoFirst는 JMDC(의료관련 빅데이터 분석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건강연령에 기반한 상품을 개발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파트너십 구축 사례

보험회사	업무 제휴 업체	주요 내용
주우	Discovery(건강관리 전문) SoftBank(통신업)	·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건강보험상품을 개발
제일	經濟産業省(정부기관)	· 스마트폰앱,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당뇨병 관련 데이터 축적, 상품개발
	교토대(학계) 일본 IBM(IT)	· 교토대와 공동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시계열데이터로 관리 · 건강정보를 IBM에 DB화 → 상품개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NeoFirst	JMDC(빅데이터)	· JMDC의 건강검진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건강연령*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상품 출시 *실제연령보다 건강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명치안전	SoftBank(통신업)	· SoftBank의 AI로봇을 지역 점포에 배치 → 고객 커뮤니케이션 보완 수단, 신상품 및 서비스 정보 제공
	FiNC(스타트업)	·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FiNC의 건강관리앱에서 분석 → 건강보험 신상품 개발
Metlife	동경대학교(학계)	· 생활습관병, 치매 등 개인별 맞춤형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주우생명은 2018년에는 보험계약자의 건강 포인트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사망보험,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을 개발할 계획에 있음.

■ 최근 일본 보험회사의 산업 간 협업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은,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⁴⁾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⁵⁾을 억제하고 건강증진과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헬스케어산업 육성⁶⁾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제조업, 보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실시함.⁷⁾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형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및 다양한 산업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로 산업 간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표 2〉 참조).

〈표 2〉 국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제휴 업체 및 제공 수단	·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에 국한(웨어블기기, 전용 APP, 콜센터 등 활용)
제공 대상	·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고액의 보험상품(종신, CI, 암 등) 가입자 위주
서비스 차별화	· 일부 보험회사에서 고객군 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	· 상담, 건강관련 정보제공,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 위주
보상 체계	· 일부 보험회사에서 건강행동(식단, 운동 등)에 대한 현금, 현물 등 보상 제공

-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타 산업 간의 융합이 핵심 요건이므로, 헬스케어산업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정비가 요구됨. **kiri**

4) 의료기기의 신규 진입 확대 및 승인심사 체계 개선, 원격의료 허용 확대 등.

5) 일본 국민 의료비는 2013년 39.5조 엔에서 2025년 54조 엔으로, 초고령화로 인해 매년 1조 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미즈비스도쿄 UFI 은행).

6) 일본 정부는 헬스케어산업 시장을 2013년 16조 엔에서, 2020년 26조 엔, 2030년 37조 엔으로 성장 목표를 수립함(미즈비스도쿄 UFI 은행).

7)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인허가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에 따라 소프트뱅크, NTT, 니콘 등 타 업종의 헬스케어산업 진출이 용이해짐.